「취업진로연구」 제12권 제2호(통권 38호)
(사)한국취업진로학회
2022. Vol. 12, No.2, pp.137~156
DOI http://dx.doi.org/10.35273/jec.2022.12.2.007

논문접수일 : 2022년 05월 12일
최종수정일 : 2022년 06월 28일
게재확정일 : 2022년 06월 29일

#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조은정** (동서대학교)*

국문요약

청소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다문화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 역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였다. 구체적 진로 관련 요인인 진로교육 및 활동(참여정도, 만족도), 진로태도(결정성, 준비성), 진로장벽(자기이해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직업선택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것이다. 이때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2018년 7월-10월에 조사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다. 분석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 총 1,197명이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선택결정에 따른 진로 관련 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와 만족도, 진로태도의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진로장벽인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진로 관련 요인 중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덧붙여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남자청소년은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요인이, 여자청소년은 진로결정성과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요인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체계적 진로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성별을 고려한 구체적 진로 지원전략을 강구해야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직업선택결정, 진로태도, 진로장벽,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 제1저자,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E-mail: jejung@dongseo.ac.kr; Tel: 051-320-1891; Fax: 051-320-1994.

# Ⅰ. 서 론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확장되는 등 발달과업의 수행과 더불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잠정적인 진로의 선택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김영미 · 현안나, 2020; 선혜연 · 김계현, 2008). 청소년기는 생애 진로발달에서 자신에 대해 이해하고 직업세계에 대해 충분한 탐색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와 구체적인 진로영역에 대해 탐색하고 초점화된 역량을 강화하며, 의사결정을 준비하는 탐색기에 걸쳐 있다(김지연 · 이윤희, 2019). 진로발달은 일생동안 지속적인 변화와 선택이 요구되는 과업 중 하나인데(Super, 1994), 생애진로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야말로 진로탐색과 결정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며 이로 인해 진로발달이 촉진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 청소년 통계'를 공개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인구는 2022년 기준 814만 7천명으로 총인구의 15.8%를 기록하였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24만 명 줄어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인 것이다. 또한 청소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2060년이 되면 1980년(1401만 5천명)의 3분의 1 수준, 총인구의 10.7%(454만 5천명)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34600530). 반면, 다문화학생은 전년도 대비 8.6% 증가하여 16만 여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학생의 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3년 0.9%에 비해 거의 3배 가깝게 증가하였다. 또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에서 지난해 4.2%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0.2%에서 1.1%로 무려 5.5배 급등하였으며,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https://m.yna.co.kr/view/AKR20220128157500530). 즉, 전체 청소년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다문화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심 역시 확대되고 있다. 물론 각 개인이 바라보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기대치는 편차가 있다고 해도, 다문화청소년 역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중요한 인력이라는 기대는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즉, 그들이 충분한 진로준비과정을 거쳐 진로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관심과 그 과정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정부는 그동안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꾸준히 정책적 노력을 증대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한국어교육과 학업지원, 사회문화적응 중심이었고, 진로나 취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양계민 외, 2018). 실제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청소년의 취학률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학습지원 다음으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꼽았다. 통상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적응 교육의 수요보다 진로교육과 진로상담에 대한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진로지원에 대한 요구의 증가는

양계민(2019)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다문화청소년이 원하는 지원 중 8순위에 그쳤던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2016년에는 4순위로 상승하였고, 학부모가 원하는 지원 내용에서도 진로지원이 3순위로 나타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관련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양계민, 2019; 김지연・이윤희, 2019).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요구를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연구영역에서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관심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였다. 대부분 아동기, 청소년 초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적응이나 전반적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 진로문제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김지연・이윤희(2019)는 학회지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10년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동향과 과제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주제 연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 사회과학, 사회복지 분야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관심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다문화청소년의 세부 구분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구별하여 이루어진 연구는 적은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관련 연구의 주제는 대부분 진로 변인에 관한 연구, 일반학생과의 비교 연구, 진로발달의 경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진로장벽, 부모,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변인에 관한 연구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발달이나 진로결정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이 많은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박하나 등, 201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개입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워 향후 다문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김지연・이윤희, 2019).

한편, 진로장벽은 진로를 계획함에 있어 자신의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어렵게 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뜻한다(손은령, 2002). Swanson과 Woitke(1997)는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개인적 혹은 환경적 상황이나 사건이 바로 진로장벽이라 하였다. Lent 등(2000)은 진로관련 연구들이 지나치게 인지적, 개인적 요인에 집중되어 맥락적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진로발달에 있어 중요한 맥락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진로장벽을 강조하였다. 즉, 그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에서는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이 진로준비의 과정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개인적 변인들과 함께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Lent et al., 2000). 몇몇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장벽을 높게 느낀다고 밝혔다(이아라 등, 2018; 이지민・오인수, 2013). 다문화청소년이 느끼는 진로장벽은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의 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요소의 부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진로장벽은 결국 진로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전제를 둘 수 있다(김효선, 202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주목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관련 변인들 중에서도 특히 진로관련 변인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는데 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관련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었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련하여 최근 사회맥락적 요인의 검토로 다양한 요인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데, 정작 진로 관련 요인들과의 구체적 관계성을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및 활동의 경험, 진로태도, 진로장벽의 진로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세부 하위영역별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세심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있어 성차는 유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로장벽을 더 크게 느낀다는 연구결과 등에 착안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영향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요인은 직업선택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며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바로 청소년기이다. 이 시기는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나아가는 단계를 의미한다(Supper, 1990). 미래의 직업선택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며 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것이다(오정아 등, 2021). 청소년기 진로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 Ginevra 등(2015)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은 결국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16만 여명에 이르게 된 현 시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이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1980년대 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진로선택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어 여성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면서 발전하게 되었다(Hackett & Betz, 1981; 김자경・오혜정, 2021). 그 이후 Lent 등(1994)은 진로발달에 있어 성향, 관심, 인지 등의 개인적 요인만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장벽이나 사회적 지지 등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모두에 주목하여 이

론화한 것이 사회인지 진로이론이다(김자경・오혜정, 2021).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진로발달과 관련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진로행동 및 진로장벽에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 틀을 제공하였다(김영미・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발달의 수준이 낮고,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체계적 진로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도 부족한 현실임을 밝히고 있다(김민경, 2015; 남부현・최충옥, 2012; 선혜연, 2015; 신연주・이경순, 2019; 유비・김기현, 2015; 유성창 등, 2016).

## 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관련 요인

진로는 삶에 있어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의미한다. 그래서 진로는 한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 과정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정랑, 2020).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결정 수준은 향후 미래에 펼쳐질 삶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 실현을 위해 단계적 과제를 설계하는 진로설계의 중요한 측면이 된다(장현진, 2018). 다시 말해 청소년기는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설계한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진로를 설계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데, 그 중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이나 활동은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김자경과 오혜정(2021)은 학교 내 진로교육 및 활동이 다문화청소년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활동이 되며, 이것이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 인식수준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김혜경과 어윤경(2021)의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에 대해 높게 인식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내 진로교육 및 활동에는 대표적으로 진로 관련 교과목의 운영, 진로 체험,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의 진로활동 등이 있다(최선애, 2017). 몇몇 연구에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진로관련 활동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오승근・이진숙, 2016; 유진이・기소형, 2018).

다음으로 진로태도 요인은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진로준비성은 다양한 진로결정을 위한 실천행동을 의미한다. 즉 실제로 정보를 탐색하고 준비하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Conner et al., 2010).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진로 및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결국 진로준비 과정을 통해 진로결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이형하, 2020; 정윤희・전주성, 2019; Conner et al., 2010). 진로결정성은 자신의 직업과 진로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직업과 진로의 세계에서 지속적인 성공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경험을 뜻한다(Lopez & Ann-Yu, 2006; 이창훈, 2021).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충분한 동기가 형성되었을 때 가능해지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도 연관이 깊

다(이혜미 · 김유미, 2019; 홍경남, 2018). 선행연구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준비와 진로결정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이유경 등, 2012; Gysbers et al., 2014), 다문화청소년 중에서도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전공 및 직업선택,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하나 등, 2013).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로장벽, 이중문화경험,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이 영향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성윤희 · 장은영, 2020; 이형하 등, 2019; 전혜숙 등,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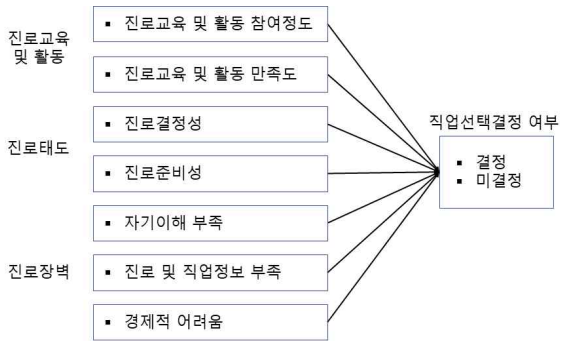
한편, 진로장벽은 적절한 진로발달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달리 그들이 경험하는 이중문화 정체성의 혼란이나 문화 적응에서 오는 압박감으로 인해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Castro, 2003; Holloway-Friesen, 2018).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도 낮아지게 되며, 덜 결정된 태도를 갖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의 혼란과 갈등 경험으로 더더욱 진로발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김영미 · 현안나, 2020; 김자경 · 오혜정, 2021; 이혜미 · 김유미, 2019).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을 자기이해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자기이해 부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주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란 충분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정도를 뜻한다. 또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운 환경으로 직업에 대한 준비나 결정에 있어 곤란함을 겪는 정도이다(김혜경 · 어윤경, 2021). 진로장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성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이때 여성이 남성보다 진로장벽에 있어 더 민감하고 취약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홍지선 · 계은경, 2016; Holloway-Friesen, 2018). 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장벽과 관련하여 연구한 김영미(2021)는 소득계층에 따라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정도가 다를 뿐 아니라, 소득계층별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도 다름을 밝혔다.

# III. 실증연구

## 3.1 연구모형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가지 요인은 진로교육 및 활동, 진로태도, 진로장벽이다. 진로교육 및 활동은 진로교육 및 활동의 참여정도와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 진로태도는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그리고 진로장벽은 자기이해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모형은 총 7개 하위요인이 다문화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어떠한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그림 1>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3.2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의 8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8차년도의 조사는 2018년 7월-10월에 이루어졌다. 다문화청소년패널은 2011년부터 구축된 패널로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이 패널은 동일한 대상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분석대상자는 8차년도 고등학교 2학년 다문화 청소년으로 1,19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587명, 여자 청소년은 610명으로 여자 청소년이 조금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7세가 1,0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6세, 18세의 순이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부터 2021년 9월에 승인절차를 밟았고 원자료를 송부 받아 2022년 1월부터 5월에 걸쳐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분석대상자 분포

| 구분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20세 | 계 |
|---|---|---|---|---|---|---|
| 남자 | 39(6.6) | 530(90.3) | 16(207) | 1(0.2) | 1(0.2) | 587 |
| 여자 | 51(8.4) | 534(87.5) | 23(3.8) | 2(0.3) | - | 610 |
| 계 | 90 | 1064 | 39 | 3 | 1 | 1,197 |

## 3.3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 데이터에서 사용한 도구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는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교육 및 활동에 참여한 활동을 측정한 것으로 '진로와 직업' 교과 수업과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등과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12개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질문한 결과를 합산하여 비율척도화 하여 0회에서 12회로 참여정도를 측정하였다.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의미하고, '매우 불만족이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은 이기학과 한종철(199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활용한 것으로, 각각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진로결정성의 문항은 '나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았다',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등으로 4점 척도로 평균값을 구하였다. 진로준비성의 문항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나의 흥미나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고 싶다' 등의 문항으로 4점 척도이고, 평균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s α=.833과 Cronbach's α=.783이다.

진로장벽은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성되었다. 이은설(2005)이 개발한 척도를 활용한 것이다. 자기이해 부족의 문항은 '나는 나를 잘 몰라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다.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문항은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 문항은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다', '대학을 생각하면 돈 걱정이 앞선다', '원하는 학원 과외에 다닐 형편이 안돼서 꿈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다. 각각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인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α=.902, Cronbach′α=.862, Cronbach′α=.781이다.

직업선택결정 여부는 '학생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 결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 직업선택결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0", 직업선택결정을 한 학생은 "1"로 재코딩하여 점수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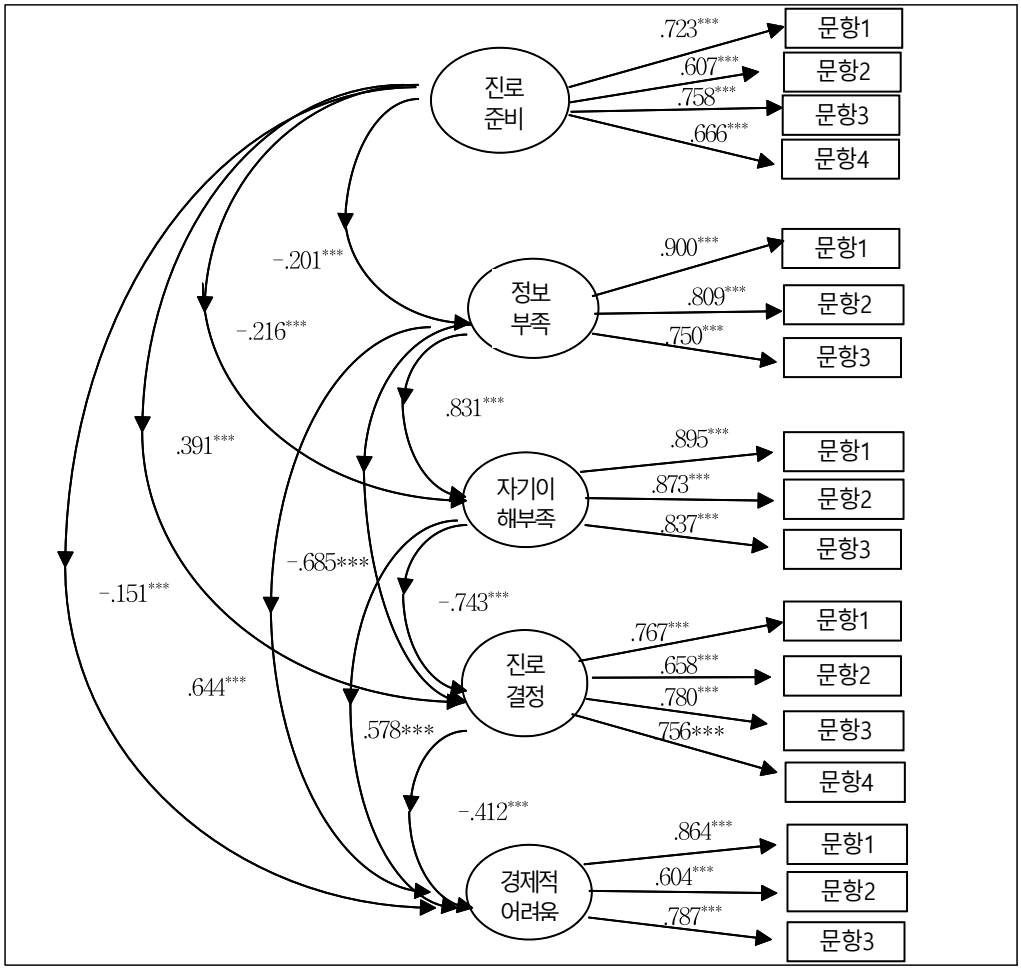
각 측정도구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1개 요인으로 구성된 변수인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와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를 제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적합도 중 카이자승의 결과는 $\chi^2$=969.256(df=109, p=.000), 표준적합도(NFI)=.915, 비교적합도(CFI)=.924, TLI(Tucker-Lewis index)=.905, 개량화오차평균(RMSEA)=.081이면서 90%신뢰구간에서 .077~.086으로 나타나 지수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모형 적합도**

| 모형 | chi-suqare($\chi^2$) | GFI | TLI | CFI | NFI | RMSEA | |
|---|---|---|---|---|---|---|---|
| | | | | | | 지수 | 구간(90%) |
| 측정모형 | 969.256 (df=109, p=.000) | .908 | .905 | .924 | .915 | .081 | .077 ~ .086 |

요인계수(표준화 계수)와 요인 간 상관과 관련된 수치들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변수 간 관계를 나타내는 통계값은 공분산과 상관이 있는데 공분산은 상관계수의 비표준화 된 값을 의미하고,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표준화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분석한 결과 요인 간 상관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 수 있는데 기각비율 값이 1.96이상이고, 유의미한 정도가 p-value=.000으로 나타났다. 5가지 요인과 각각 문항들 간의 요인계수 범위는 -.201에서 .831이고 유의미한 정도는 p-value=.000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측정도구 측정모형 계수




## 3.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직업선택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에 따른 평균값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요인이 직업선택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령의 분포는 16세에서 20세이나 18세부터 20세에 해당 되는 조사대상자는 소수이므로 5개 집단에서 3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 Ⅳ. 실증분석 결과

## 4.1 진로 관련 요인의 기술통계 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지난 1년간 다문화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및 활동에의 참여정도는 평균 3.86회 참여하였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36점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는 진로결정성에 대해 4점 만점에 2.71점, 진로준비성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2.98점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2.0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은 2.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기이해 부족은 2.18점이었다.

<표 3> 진로 관련 요인의 기술통계 분석

| 변수 | | 평균값 | 표준편차 |
|---|---|---|---|
| 진로교육 및 활동 | 참여정도 | 3.86 | 3.03 |
| | 만족도 | 3.36 | 0.79 |
| 진로태도 | 진로결정성 | 2.71 | 0.67 |
| | 진로준비성 | 2.98 | 0.55 |
| 진로장벽 | 자기이해 부족 | 2.18 | 0.75 |
| |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 2.23 | 0.71 |
| | 경제적 어려움 | 2.02 | 0.65 |

## 4.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 여부,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 4.2.1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 여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여부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직업선택을 결정한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16세에서는 직업선택을 결정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모두 동일한 분포였으나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 직업선택을 결정한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직업선택결정 여부

| 변수 | | 직업선택 결정 | 직업선택 미결정 | |
|---|---|---|---|---|
| 성별 | 남자 | 317(54.0) | 270(46.0) | .042 |
| | 여자 | 333(54.6) | 277(45.4) | |
| 연령 | 16세 | 45(50.0) | 45(50.0) | .750 |
| | 17세 | 582(54.7) | 482(45.3) | |
| | 18세 이상 | 23(53.5) | 20(46.5) | |

### 4.2.2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각의 하위요인별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에 따라서는 진로준비성, 자기이해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준비성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진로장벽에 있어서도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자기이해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경제적 어려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세의 청소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연령이 가장 높은 18세 이상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경제적 어려움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 변수 | 성별 | | | 연령 | | | |
|---|---|---|---|---|---|---|---|
| | 남자 | 여자 | t값 | 16세 | 17세 | 18세 이상 | F값 |
|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 3.84 | 3.88 | -.212 | 3.62 | 3.93 | 2.81 | 3.099* |
|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 3.40 | 3.31 | 1.906 | 3.22 | 3.38 | 3.16 | 2.878 |
| 진로결정성 | 2.73 | 2.70 | .660 | 2.72 | 2.72 | 2.60 | .584 |
| 진로준비성 | 2.90 | 3.06 | -4.872*** | 2.98 | 2.98 | 2.92 | .239 |
| 자기이해 부족 | 2.13 | 2.22 | -2.032* | 2.17 | 2.18 | 2.29 | .470 |

| | | | | | | | |
|---|---|---|---|---|---|---|---|
|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 2.20 | 2.26 | -1.431 | 2.35 | 2.22 | 2.36 | 2.178 |
| 경제적 어려움 | 1.95 | 2.08 | -3.378*** | 2.14 | 2.00 | 2.24 | 4.674* |

※ *p<0.1, ***p<0.001

## 4.3 직업선택결정과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 4.3.1 직업선택결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직업선택결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활동 경험, 진로태도 그리고 진로장벽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t-test로 검증하였다.

직업선택결정 여부에 따라 모든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선택을 결정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가 많았고,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도 직업선택을 결정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장벽에 대해서는 직업선택미결정 청소년들이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업선택 결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

| 변수 | 직업선택결정 여부 | | |
|---|---|---|---|
| | 결정 | 미결정 | t값 |
|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 4.17 | 3.49 | 3.901*** |
|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 3.44 | 3.26 | 4.030*** |
| 진로결정성 | 3.10 | 2.25 | 27.667*** |
| 진로준비성 | 3.11 | 2.83 | -8.862*** |
| 자기이해 부족 | 1.89 | 2.53 | 16.280*** |
|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 1.97 | 2.54 | 15.404*** |
| 경제적 어려움 | 1.89 | 2.16 | 7.279*** |

※ ***p<0.001

### 4.3.2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진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4.0%이고, 카이제곱은 863.437(p=.000)로 나타나 분석모형은 적합하였다. 또 종속변수의 분류정확도는 79.1%로 양호하

게 나타났다.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에 있어서 긍정적일수록 직업선택결정 가능성이 증가하고,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하다는 진로장벽을 높게 느낄수록 직업선택결정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이 1 증가할 때 직업선택결정 가능성은 각각 18.423배, 1.839배 정도 증가하고,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 1 증가할수록 직업선택결정 가능성은 38.3%(0.383=1-0.617) 감소시킨다.

직업선택결정의 세 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진로결정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진로준비성, 자기이해 부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구분 | B | S.E. | Wald | df | Exp(B) | 통계량 |
|---|---|---|---|---|---|---|
|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 .014 | .026 | .289 | 1 | 1.014 | Nagelkerker $R^2$=.540<br>cox 및 snell $R^2$=.404 |
| 잔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 -.044 | .107 | .167 | 1 | .957 | |
| 진로결정성 | 2.914 | .210 | 192.858 | 1 | 18.423*** | |
| 진로준비성 | .609 | .163 | 13.896 | 1 | 1.839*** | |
| 자기이해 부족 | .055 | .167 | .107 | 1 | 1.056 | |
|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 -.483 | .179 | 7.259 | 1 | .617** | |
| 경제적 어려움 | .063 | .148 | .180 | 1 | 1.065 | |

※ **p<0.01, ***p<0.001

동일한 모형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이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결정성과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요인은 진로결정성임이 밝혀졌고, 또 진로장벽인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만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표 8>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남자 청소년)

| 구분 | B | S.E. | Wald | df | Exp(B) | 통계량 |
|---|---|---|---|---|---|---|
|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 -.011 | .035 | .091 | 1 | .989 | Nagelkerker $R^2$=.519<br>cox 및 snell $R^2$=.389 |
| 잔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 .099 | .150 | .435 | 1 | 1.104 | |
| 진로결정성 | 2.421 | .272 | 79.031 | 1 | 11.254*** | |
| 진로준비성 | .907 | .235 | 14.881 | 1 | 2.477*** | |
| 자기이해 부족 | -.213 | .246 | .751 | 1 | .808 | |
|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 -.313 | .264 | 1.412 | 1 | .731 | |
| 경제적 어려움 | .119 | .210 | .320 | 1 | 1.126 | |

※ ***p<0.001

<표 9>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여자 청소년)

| 구분 | B | S.E. | Wald | df | Exp(B) | 통계량 |
|---|---|---|---|---|---|---|
|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 | .045 | .040 | 1.211 | 1 | 1.046 | Nagelkerker $R^2$=.576 cox 및 snell $R^2$=.431 |
| 잔로교육 및 활동 만족도 | -.214 | .154 | 1.931 | 1 | .807 | |
| 진로결정성 | 3.549 | .336 | 111.718 | 1 | 34.771*** | |
| 진로준비성 | .291 | .238 | 1.494 | 1 | 1.338 | |
| 자기이해 부족 | .330 | .241 | 1.882 | 1 | 1.391 | |
|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 -.681 | .255 | 7.143 | 1 | .506** | |
| 경제적 어려움 | .071 | .214 | .111 | 1 | 1.074 | |

※ **p<0.01, ***p<0.001

#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 관련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지원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진로 관련 요인으로는 진로교육 및 활동의 참여정도와 만족도,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진로장벽의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이때 다문화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8차년도 데이터의 총 1,197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직업선택결정 여부와 진로 관련 요인인 진로교육 및 활동, 진로태도, 진로장벽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직업선택결정 여부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른 진로 관련 요인에서는 진로준비성과 자기이해 부족, 경제적 어려움의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진로준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자기이해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의 진로장벽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른 진로 관련 요인에서는 진로교육 및 활동 참여정도와 경제적 어려움의 요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17세 청소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18세 이상의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로장벽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업선택결정에 따른 진로 관련 요인을 직업선택 결정 집단과 직업선택 미결정 집단으로 구분하여 t-test검증을 실시한 결과 진로 관련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선택 결정 집단이 미결정 집단에 비해 진로교육 및 활동의 참여정도, 만족도도 높고,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업선택 미결정 집단은 직업선택 결정 집단에 비해 진로장벽의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경제적 어

려움 모두에서 장벽을 높게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진로 관련 요인 중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이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진로장벽 요인 중에서는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만이 직업선택결정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성실히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에 대해 결정할수록 직업선택결정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한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할수록 직업선택결정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영향력은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몇몇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유경 등(2012)의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다문화청소년이 진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또 박하나 등(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에 초점을 두어 다문화 고등학생과 일반 고등학생을 비교 연구한 결과 일반 고등학생에 비해 다문화 고등학생이 전공 및 직업선택, 진로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진로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며, 진로발달에 있어 취약하다는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양계민・강경균, 2017; 이아라 등, 2018; 이지민・오인수, 2013; 이지은, 2016; 장임숙・김희재, 2014).

추가적으로 직업선택결정 영향 요인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준비성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태도인 진로결정성과 진로장벽의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즉, 두 집단 모두에서 진로결정성이 공통요인으로 확인된 반면, 진로장벽인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요인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만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다 진로장벽에 취약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홍지선・계은경, 2016; 홍세희 등, 2005).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있어서 진로결정성, 진로준비성,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결국 다문화청소년에게 진로 및 직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진로에 대해 충분히 탐색하고 준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 현재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 및 활동은 어떠한가? 이제는 그 효과성 등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세 요인들은 결국 진로교육 및 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혜경과 어윤경(2021)은 진로교육 및 활동이 진로발달, 진로장벽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진로교육 및 활동의 충분한 경험이 진로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충족히 채워 막연한 진로에 대한 장벽을 낮추게 하고 원만한 진로발달을 이루어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한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총 12회 중 평균 3.86회로 1/3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참여정도의 평균수준이 낮아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진로교육 및 활동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제 그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진로교육 및 활동의 내용이 다문화청소년 당사자들의 요구에도 잘 부합하는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학교 내 진로교육 및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교외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겠다. 실질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이 관심 갖는 직업, 다문화청소년만의 특수한 배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그들의 강점인 이중언어 사용 등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업 등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적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진로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턴시스템 마련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직업선택결정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위한 지원책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성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바 있듯이 진로장벽에 대해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높게 인식한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인 것이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에도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진로장벽 중에서도 특히 진로 및 직업정보에 대한 부족의 장벽을 높게 느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 지원책을 강구할 때에 성별을 고려한 지원전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 청소년에게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남자 청소년에게는 실질적으로 진로준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덧붙여 남녀청소년 모두에게 진로결정성이 공통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문화청소년이 스스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또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충분히 성취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횡단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가 갖는 장점을 고려하여 종단적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진로발달 관련 요인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진로 관련 요인에 초점을 두고 이차자료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요인구성에 한계가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타당도 높은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진로 관련 요인을 추가, 요인 간의 상호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참고문헌(References)

김민경(2015),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2), 121-134.

김영미(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 가족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536-545.

김영미 · 현안나(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 분석”, **학교사회복지**, 49, 311-338.

김자경 · 오혜정(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진로결정성, 진로장벽 인식의 관계: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3(1), 1-26.

김정량(2020),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이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평택대학교 대학원.

김지연 · 이윤희(2019),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과 과제: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2009-2019.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1205-1230.

김혜경 · 어윤경(2021),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진로활동, 성별, 지역의 개인차 효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123-143.

김효선(2020),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남부현 · 최충옥(2012),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25(3), 117-137.

박하나 · 조영달 · 박윤경(2013),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6(1), 21-50.

선혜연(2015), “다문화가정 학생의 진로발달 연구 동향”, **초등교과교육연구**, 22, 15-30.

선혜연 · 김계현(2008), “청소년의 진로의사결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특성에 따른 부모의 관여방식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9(2), 161-179.

성윤희 · 장은영(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43-64.

손은령(2002),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개인, 심리적 변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15-427.

신연주 · 이경순(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5(3), 95-120.

양계민(2019), **다문화학생의 진로 요구와 지원정책**, 2019년 진로진학 · 전문 상담교사 다문화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양계민 · 강경균(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 황진구 · 연보라 · 정윤미(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발행처, 인쇄 도서출판 한학문화)

오승근 · 이진숙(2016),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의 진로준비 현황 및 진로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8(3), 123-149.

오정아 · 이영주 · 김평화(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모형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6), 99-105.

유비 · 김기현(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67(1), 5-29.

유성창 · 김재우 · 이윤옥(2016), “다문화학생의 진로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요구”, **교육문화연구**, 22(6), 451-481.

유진이 · 김소형(2018),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3(1), 3-46.
이기학 · 한종철(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정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335-349.
이유경 · 류재윤 · 방홍복(2012),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2), 129-154.
이은설(2005), **초 · 중 · 고 여학생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아라 · 손보영 · 이주영(2018), “다문화 청소년용 진로장벽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9(5), 257-272.
이지민 · 오인수(2013),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애착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4(3), 193-216.
이지은(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창훈(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2(2), 271-289.
이형하(2020),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진로 · 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5), 199-208.
이혜미 · 김유미(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성취동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665-689.
장임숙 · 김희재(2014), “다문화청소년의 학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60, 50-67.
장현진(2018),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와 만족도가 중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교육학회**, 31(1), 21-42.
전혜숙 · 김진영 · 전종설(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259-290.
정윤희 · 전주성(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문제연구**, 37(1), 167-185.
최선애(2017),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홍경남(2018),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성실성,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홍세희 · 황매향 · 이은설(2005),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잠재평균분석”, **교육심리연구**, 19(4), 1159-1177.
홍지선 · 계은경(2016), “여성 진로장벽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진로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3), 225-250.

Castro, V. S.(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T, US: Praeger Publishers Greenwood Publishing Group.
Conner, M., Sandberg, T. & Norman, P.(2010), “Using action planning to promote exercis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Medicine*, 40(1), 65-75.
Ginevra, M. C., Nota. L.. & Ferrari, L.(2015), “Parental Support i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Parents and Children’s Perceptio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3(1), 2-15.
Gysbers, N. C., Heppner, M.J., & Johnston, J. A.(2014), *Career counseling: Holism, diversity, and strenghts (4th edicion)*. Alexandria.
Hackett, G., & Betz, N.(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Holloway-Friesen, H.(2018). "Acculturation, enculturation, gender, and college environment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among Latino/a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5(2), 117-131.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pp.36-49.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Lopez, F.G., & Ann-Yu, S.(2006), "Predictors of career indecision in threeracial/ethnic groups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1), 29-46.

Super, D. E.(1994), *A Life-Span, Life-Space Perspective on Convergence*, In M. L. Savickas and R. W. Lent(eds.), Convergence in Career Development Theories, pp.63-74,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Swanson, J. L., & Woitke, M. B.(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https://m.yna.co.kr/view/AKR20220128157500530(2022. 5.1. download).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4134600530(2022. 5.25. download).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2, No. 2 - June 2022

# Fa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Career-Related Factors

Eun-jung Jo*
Dongseo University, Busan, Korea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areer-related fa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verified the concrete career-related factors such as career education & activity(degree of participation, satisfaction), career attitude(decisiveness, preparation), and career barrier(lack of self-understanding, lack of career & vocational information, economic hardship) on vocational choice decision. At this time,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according to gender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r the performance of this study, total 1,197 multicultural adolescents were analyzed by using the 8th-year data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each demographic characteristic. Second, in the results of examining differences in career-related factors according to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the factors such as degree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 activity, career decisiveness and preparation of career attitude, and lack of self-understanding, lack of career & vocational information, and economic hardship of career barrier. Third, among the career-related factors, the career decisiveness, career preparation, and lack of career & vocational information were revealed as the fa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Fourth, in the results of verifying differences in the factors affecting the vocational choice decision according to gender, the career decisiveness and career preparation were the factors affecting it in the group of male adolescents while the career decisiveness and lack of career & vocational information were the factors affecting it in the group of female adolescents. Based on su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intervention measures for caree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Vocational Choice Decision, Career Attitude, Career Barrier,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ngseo University, #47 Jurye-ro, Sasang-gu, Busan, Korea, 47011; E-mail: jejung@dongseo.ac.kr; Tel: +82-51-320-1891; Fax: +82-51-320-1994.